



미 증시, QT 부담, 수요 부진 우려 등으로 약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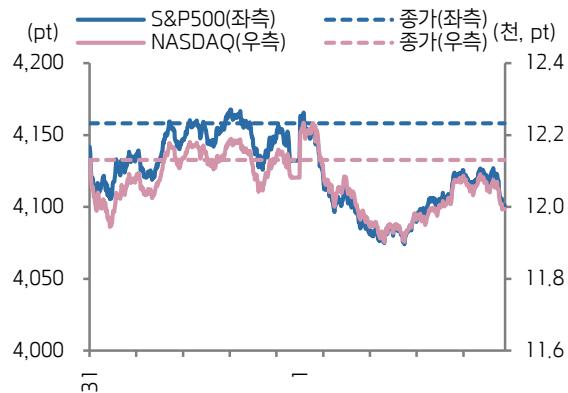
국내 휴장 기간 2 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는 ISM 제조업 PMI,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 호조에도, 바이든과 파월의 회동 실망감, 양적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인플레이션 발 수요 부진 우려 등이 약세 압력을 가하면서 하락 마감(2 거래일 누적, 다우: -1.2%, S&P500: -1.4%, 나스닥: -1.1%)

31 일(화)에는 아마존(+4.4%)의 액면분할(6월 6일, 20 대 1 분할), 5월 소비자신뢰지수(106.4, 예상 103.9), 5월 시카고 제조업 PMI(60.3, 예상 55.9) 호조 등에도, 원론적인 논의에 그쳤던 바이든과 파월의장의 회동, 유로존의 5 월 인플레 부담(8.1%YoY, 예상 7.7%) 등으로 하락 마감(다우 -0.7%, S&P500 -0.6%, 나스닥 -0.4%). 1 일(수)에는 5 월 ISM 제조업 지수 호조 등에도, 베이지북에서의 수요 부진 언급, 양적긴축 시행에 따른 금리 상승 부담, JP 모건 CEO 의 경기 침체 발언 등으로 하락 마감(다우 -0.5%, S&P500 -0.8%, 나스닥 -0.8%)

31 일 바이든 대통령의 파월 의장과 회동 자리에서 미국 경제의 최우선 해결 과제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은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현재 연준은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언급. 엘런 재무장관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평가했던 것에 대해 실수 였다고 재차 시인했으며, 공급난이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가할지를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 6 월 1 일부터 연준은 매월 475 억달러(국채 300 억달러, MBS 175 억달러)의 양적긴축을 시작하며, 만기도래 채권은 재투자되지 않을 예정. 또한 3 개월 뒤에는 양적긴축의 규모를 최대 950 억달러(국채 600 억달러, MBS 350 억달러)를 확대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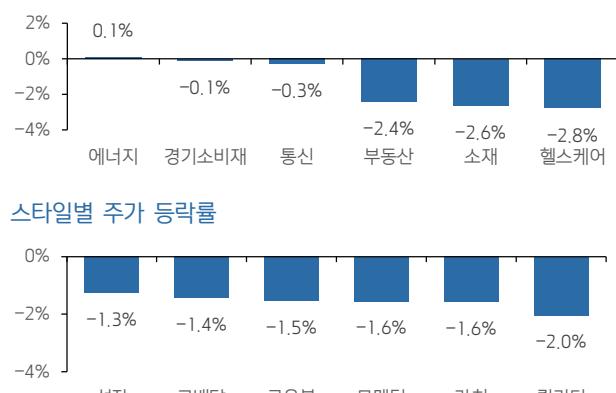
미국의 5 월 ISM 제조업 PMI 는 56.1 로 전월(55.4) 및 예상치(54.5)를 상회. 신규주문(53.5→55.1), 생산(53.6→54.2), 재고(51.6→55.9) 등 주요 세부항목들이 모두 상승했으며, 배송(67.2→65.7), 가격(84.6→82.2) 등 공급난 관련 항목들도 개선된 모습을 보임. 한편,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대부분 관할 지역 내 경제가 완만 혹은 보통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 그러나 소매, 부동산 업종에서 물가와 금리 부담으로 인한 수요 약화가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101.23	-1.37%	USD/KRW	1,237.50	-1.5%
NASDAQ	11,994.46	-1.13%	달러 지수	102.55	+0.86%
다우	32,813.23	-1.2%	EUR/USD	1.07	-0.76%
VIX	25.69	-3.2%	USD/CNH	6.70	+0.28%
러셀 2000	1,854.82	-1.75%	USD/JPY	130.14	+1.14%
필라. 반도체	3,049.03	-2.1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195.09	-1.73%	국고채 3년	3.031	+8.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330	+11.3bp
Eurostoxx50	3,759.54	-2.14%	미국 국채 2년	2.642	+16.6bp
MSCI 전세계 지수	647.87	-1.37%	미국 국채 10년	2.906	+16.8bp
MSCI DM 지수	2,770.43	-1.57%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67.86	+0.26%	WTI	115.26	+0.17%
MSCI 한국 ETF	67.61	+0.01%	금	1848.7	-0.4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63%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47.3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양적긴축 시행에 따른 금리 재급등이 국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2. 전거래일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수 이후 일시적인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3. 대외 불안에도 견조한 한국 수출이 제공할 수 있는 지수 하방 경직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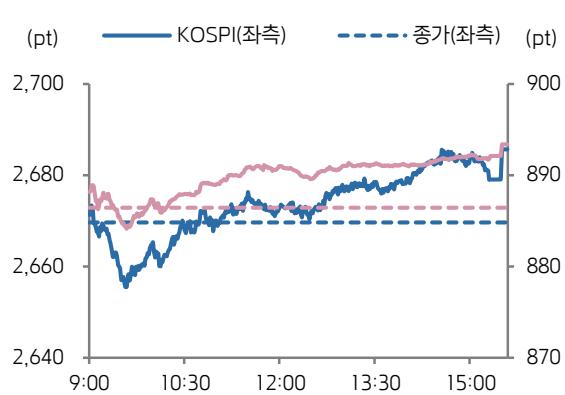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시장 불안의 중심에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바이든과 파월의 인플레 대응 회동은 원론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유발할 상황.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수요 진작 이외에는 별 다른 통제 방법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보임. 문제는 이들이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경기 침체 발생 여부이며, 현재 시장 분위기는 “경제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JP 모건 CEO 가 경고한 것처럼 침체 쪽으로 주가를 반영하려고 모습.

하지만 제조업 PMI, 소비자심리지수 등 주요 소프트 데이터들이 개선되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도 봉쇄조치 해제 및 본격적인 부양책 시행(8 월까지 특수목적채권발행 자금 소진 지시 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침체 논쟁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은 수시로 확대될 전망이나, 지표 상으로는 침체 증거가 부족하며, 밸류에이션 상 진입 메리트도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시 현시점에서 과도한 현금 비중 확대와 같은 보수적인 위험관리는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 MSCI 리밸런싱 발 외국인 1 조원대 순매수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나, 금일에는 휴장 기간 발생했던 미국발 부담 요인(양적긴축 시행, 침체 논쟁 등)으로 약세 압력을 받을 전망. 다만, 5 월 수출(+21.3%YoY, 예상+19.3%)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171 억달러)도 예상(-259 억달러)보다는 양호하게 발표됐다는 점은 국내 증시의 장중 하단을 지지해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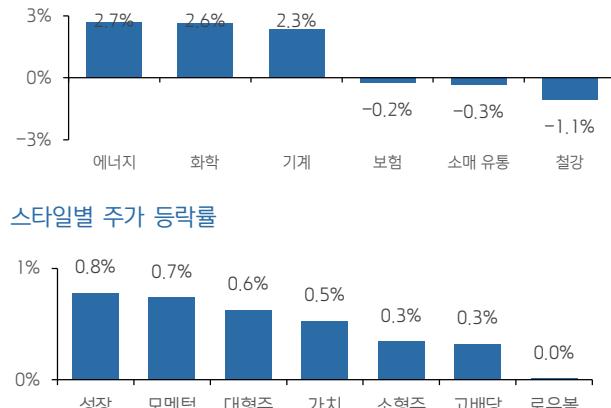
물론 비용 부담, 전방 수요 부진 등으로 연말까지 전반적인 수출 모멘텀 둔화 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공급난, 인플레이션과 같은 불안한 대외환경 속에서 예상외로 선방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 또한 수출 세부 내용 상으로 반도체(+15.0%), 자동차(+18.9%), 철강(+26.9%) 등 주력품목들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점진적으로 관련 업종들의 이익 전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